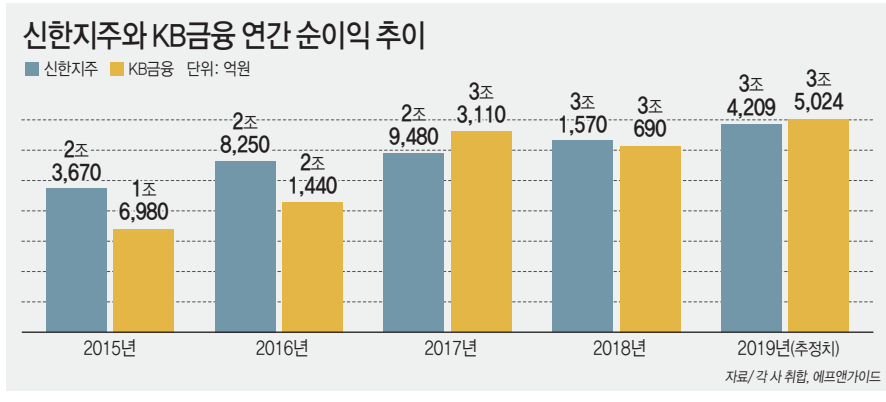
신한금융, 순익 3兆… 1년 만에 '리딩뱅크' 왕좌 재탈환

878억 차이로 KB금융 누르고 '1위'
금융투자·생명 등 비은행부문 약진
7년 만에 3조원대… 사상 최대실적



신한금융지주가 1년 만에 KB금융지주를 제치고 '리딩뱅크' 자리를 다시 탈환했다.

당초 연간 실적 기준으로 2017년에 이어 2018년도 KB금융이 리딩뱅크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KB금융이 지난해 4분기에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쇼크(실적부진)'를 기록하면서다.

이미 주식시장에서 신한지주의 시가총액이 KB금융을 앞지른 데 이어 실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

◆2018년 실적, 신한지주〉KB금융

신한지주는 12일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조1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KB금융 3조689억원을 878억원 차이로 앞선다.

신한지주 순이익은 지난 2011년 3조1000억원 이후 7년 만에 3조원 대에 재진입한 것은 물론 사상 최대 실적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중소기업 및 가계부문의 균형 있는 자산 성장과 순이자마진(NIM)이 안정화되면서 은행이 그룹 실적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이와 함께 금융투자, 생명, 캐피탈 등 비은행 부문의 약진을 통해 그룹 차원의 경상 이익 창출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글로벌 및 투자은행(IB) 시장에서도 원 신한(One Shinhan) 전략을 바탕으로 그룹사 간 협업이 극대화되며 뛰어난 성과를 냈다"며 "은행의 글로벌 부문 손익은 3215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성장했고, 그룹의 글로벌자본시장(GIB)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도 4791억원으로 58.1% 성장했다" 고 덧붙였다.

반면 KB금융의 작년 순이익 3조689억원은 전년 대비 7.3% 감소한 수준이다. 2년 연속 '3조 클럽'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2001억원으로 기존 추정치를 50% 이상 밑돌았다. 은행 희망퇴직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났고, KB증권과 KB손보의 부진도 겹쳤다.

◆올해 실적 진검승부 펼쳐지나

올해 승부는 예측하기 힘들다. 작년 순이익 차이가 800억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다.

12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한지주와 KB금융의 올해 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3조4209억원과 3조5024억원이다. 815억원 차이다. 증권사에 따라 신한지주와 KB금융 중 누가 우세할 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KB금융이 지난 몇 년간 현대증권(현 KB증권)과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인수 등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면 올해는 신한지주가 M&A와 성장동력 확충으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지난 1일 오렌지라이프가 신한금융그룹의 14번째 공식 자회사가 됐다"며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금시장 등 생명보험시장 내 그룹 위상 제고와 함께 신한금융의 고객·채널 기반을 활용한 영업 활성화, 글로벌자본시장(GIB) 및 고유자산운용(GMS) 부문과 협업을 통한 자산운용 수익율 제고 등 다양한 형태의 원 신한(One Shinhan) 시너지 창출 방안을 마련해 그룹가치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지주는 오렌지라이프에 이어 아시아신탁도 인수했다. 이와 함께 전일에는 핀테크업체 토스와 함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도전을 공식화했다. 신한은 또 초대형 IB 육성을 위해 신한금융투자 자본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KB금융 역시 M&A는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환 KB금융 부사장(CFO)은 지난 8일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생명보험사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산관리(WM)와 상품개발(제조)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 고객 타깃 공략(세그먼트)에 강점이 있는 카드사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신한생명 새 수장 성대규 내정

〈보험개발원장〉

재경부·금융위 등서 보험업 22년
혁신적인 제도 추진하는 '보험통'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내정자

신한생명 사장에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이 내정됐다.

신한금융지주는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성대규 현 보험개발원장을 신한생명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신한지주는 지난해 12월 자경위에서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둔 신한생명 이병찬 사장의 후임으로 정문국 현 오렌지라이프 사장을 내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오렌지라이프의 신한금융그룹 편입 직후 정 사장 본인이 직접 신한생명 사장 후보 추천에 대한 고사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지난 1일 자회사 편입이 완료된 직후 정 사장이 신한생명으로 자리를 옮기기 보다 오렌지라이프의 강점인 FC채널을 중심으로 영업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고객·주주·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유지·강화하겠다며 자경위 측에 신한생명 사장 후보 추천에 대한 고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자경위 관계자는 "오렌지라이프의 안정적인 그룹 편입과 더불어 향후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그룹 보험사업을 순조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오렌지라이프 경영진이 가진 안정적 리더십 발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자경위에서는 정 사장의 고사 의견을 수용하고 신한생명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재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생명 사장으로 내정된 성대규(1967년생) 후보는 재경부, 금융위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만 22년 넘게 수행해온 '보험통'이다. 관료 출신임에도 혁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추진력도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금융당국에서 보험제도와 정책분야를 담당하면서 방카슈랑스를 도입하고, 상해·질병·간병보험 같은 제3보험업 분야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의 시행을 추진해 왔다.

자경위 관계자는 "그룹 내 보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양사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향후 그룹의 보험사업라인의 경쟁력 강화에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추천의 이유" 라고 설명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번 자경위를 마지막으로 오렌지라이프를 포함한 그룹 14개 자회사의 CEO 후보 추천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새로 추천된 CEO들은 그룹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젊고 능력 있는 차세대 리더들과 업권별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인재들로 균형감 있게 조화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내정된 성 내정자는 신한생명 임원후보추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에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신한생명 대표이사 사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오늘 재상장… "주가 전망 맑음"

자기자본비율 1년 내 회복 전환 기대

13일 재상장을 앞둔 우리금융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일 전망이다.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앞둔 우리금융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배당정책, 전산시스템 안정화 등에 적극 대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전환 이후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표준등급법을 적용받고 있어, 기존 내부등급법을 적용했을 때 15%대였던 자기자본비율이 11%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면 채권을 발행하기 어렵다. 또 위험자산이 많은 금융회사를 사들이기도 어려워진다. 인수합병을 위한 실탄 마련이 어려워 자회사 확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표준등급법과 내부등급법을 병행 산출한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표준등급법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년 초 적용될 내부등급법에 빠르게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적용되는 표준등급법에 따라 3.8%포인트 가량 낮아질 수 있는 자기자본비율도 1년 안에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관계자는 "1년 뒤에 내부등급법 적용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행산출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과 지주사의 내부등급법은 그 모형이 다소 차이가 있어 금감원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배당 정책도 긍정적인 주가흐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2017년 배당성향을 26.7%로 정하며 다른 금융지주보다 높은 배당성향을 확정했고, 추후 완전 민영화를 위한 주가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손 회장이 배당성향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배당성향을 전년 수준인 26.7%로 가정했을 때 올해 주당배당금은 750원으로 5.1%의 높은 배당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는 3월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배당성향을 결정하겠지만 지난 11일 실적발표를 통해 공개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9.62%라는 점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이익률을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이 지난해 도입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인 위니(WINI)도 완전한 안정화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위니는 유닉스(UNIX) 계열의 전산 시스템으로 유지와 보수가 쉽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도입 초기에는 트래픽 용량 초과로 인해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뱅킹 등에서 일부 장애가 있었으나 그 이후 서버 증설을 하는 등 전면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오류를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영 기자 hong93@

NH농협銀, '거액익스포져 관리시스템' 구축

한도관리 효율성 제고하고
이슈 기업 상시 모니터링도

NH농협은행은 거액익스포져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거액익스포져 관리시스템(NH-LEMS)' 구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NH-LEMS은 2020년 도입예정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거액익스포져 관리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실질적인 거액익스포져 통제로 익스포져 관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

또 기존의 신용공여 한도관리시스템을 NH-LEMS에 탑재해 한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로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관리시스템으로 감독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이슈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됐다. 개별 기업의 현안이 발생하면 익스포져 현황 등을 적시에 파악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허충회 리스크관리부문 부행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감독규제에 선제적 대응뿐만 아니라 이슈기업에 대한 적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관리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익스포져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